

시베리아에 세우는 복음의 전진 기지

빠비엘

아시아와 유럽에 걸친 대륙으로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영토를 가진 나라-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우리 한민족과 천 년이 훨씬 넘는 관계 속에 있었지만 작년 2020 년에야 비로소 수교 30 년을 맞은 나라다. 큰 땅덩어리에 잠재한 풍부한 자원만큼이나 선교적 역량과 역할이 기대되는 나라로서 러시아의 복음화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유라시아 대륙에 복음주의 실�크로드를 개척하고 확장하기 위한 전진 기지로서 러시아 교회의 부흥을 건인해야 할 이유다. 복음주의 비율이 약 0.3% 미만으로 세계적으로도 최악의 수준인 러시아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선교적 전략을 세워야 할까.

복음 없는 러시아 정교회

러시아의 기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역사적인 접근이다. 지난 10세기, 러시아 정교회로 시작되었으나 볼셰비키 혁명으로 인한 공산화로 쇠퇴할 수밖에 없던 역사와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다시 부흥의 때를 맞이하여 지금에 이르는 다이내믹한 흐름을 살피는 것이다. 또 하나는 현재 러시아 전반의 종교 상황과 그 안에서의 기독교의 위치를 보는 정적인 관점이다. 달리 말하면 러시아 역사의 결과가 지금의 러시아 교회인 것이다.

러시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변곡점이 되는 해는 1917년과 1988년이다. 1917년은 볼셰비키 혁명으로 러시아가 제정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국가로 변화된 해이다. 1988년은 당시 고르바초프 대통령 겸 공산당 서기장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유물론과 종교의 공존을 용인한 해이다.

러시아 선교에 접근할 때 가장 중요한 갈림길은 러시아 정교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만약 러시아 정교를 기독교로 인정한다면 러시아는 선교 대상국이 아닐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40%가 넘는 러시아인들이 자신을 러시아정교 신자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물론 개중에 정규적으로 러시아 정교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10% 미만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의 40%가 넘는 사람들이 자신을 신자라고 고백한다면 러시아는 더 이상 선교 대상국이 아니다. 전 세계 선교사 파송 2위 국가인 한국이 5천만의 인구를 가졌지만 기독교인이 천 만, 즉 20%를 넘지 않는다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말이다.

실제로 러시아에 와서 러시아 정교를 대해 보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사랑과 자유함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다. 화려하고 웅장한 종교 의례(Liturgy)와 건물의 외형은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흐르는 생명은 느낄 수 없다. 그런 러시아 정교의 현실 하에서 개개인들이 구원을 얻는 믿음의 자리에 서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장대한 건물과 감각적이고 현란한 종교적 의례에 참석하는 것으로 자기 위안과 만족을 찾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전 국민의 40%에 달하는 교인 수를 자랑하지만 그들이 가진 영적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는 단적인 증거이다.

70여 년 공산국가의 교회 핍박

따라서 러시아 기독교 역사의 시발점은 러시아 정교보다 개신교에서 찾고 싶다. 개신교회는 16세기, 서유럽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서 시작되었으나 아주 미미한 상태였다. 그런데 18세기에 예카테리나 2세가 남편 표트르 3세에 이어 여자 황제가 되면서 변화가 생겼다. 예카테리나 2세는 독일 출신이었기 때문에 당시 많은 개신교인들이 서유럽에서 러시아로 이주했다. 그로 인해 이전에 들어와 있던 루터교가 더 발전하고 로마 카톨릭과 메노나이트까지 러시아에 등장하게 되었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은 러시아 정교와 개신교 두 흐름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다. 볼셰비키들은 자본주의가 망하면 기독교도 따라서 시들어버릴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러시아 정교는 러시아인들의 일상 생활에 짙게 배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 정교의 자국을 지우는 것은 쉽지 않았다. 러시아 정교의 의식을 거치지 않으면 태어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소련 정부는 한편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체포, 투옥하면서 다른 편에서는 러시아인들의 생활을 바꾸려고 노력했다 예를 들어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세례를 받는 대신에 아이의 출산을 정부에 등록하게 하고 메달을 주는 등 물리적 보상으로 러시아인들의 일상 생활을 바꾸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2 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고 독일이 러시아를 침공하자 소련 정부는 독일에 대항하여 전 러시아적으로 사람들과 물자들을 동원하고자 했다. 그때 많은 수의 러시아 정교와 개신교인들이 동원됐는데 이들을 독려하기 위해 소련 정부는 기독교를 인정하고 협력하는 조치를 취하며 결국 2 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게 된다. 이 기간에 개신교가 크게 부흥해서 등록된 개신교 교회들이 소련 정부에 신고한 신자들의 숫자가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여 오십 만을 넘겼다는 정부 기록이

있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 무신론을 바탕으로 한 공산주의 치하에서 기독교인 체포와 구금, 교회 폐쇄 등의 종교 탄압이 자행되면서 러시아 정교의 경우 전성기에 오 만에 달하던 교회가 천 개 정도로 줄 정도였다.

1988년은 러시아 기독교가 큰 변화를 일으킨 해였다. 고르바초프 대통령 겸 공산당 서기장이 기독교를 용인하면서 공산당의 무신론과 종교의 병존을 수용한 것이다. 이 때부터 3년 후 1991년 소련 연방 해체 과정을 통하면서 러시아 개신교는 거의 수직 상승이라고 할 정도로 부흥했다. 이 때 가장 부흥했던 교회가 오순절 계통의 교회로 당시 극보수적이었던 침례교보다 자유롭고 강렬하며 뜨거운 예배 형식을 보였다.

기독교인의 삶이 문제다

그러나 2000년 대에 들어서면서 모든 개신교 교회들은 1988년 이후 70년 만에 종교 자유의 파도를 탔던 급속 성장이 멈추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기독교인들의 삶이 문제였다.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후에도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죄와 이기심 가운데 있으면서 자신뿐 아니라 그들 주변의 사람들도 실망함으로써 더 이상 주변을 통한 전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주 원인이었다. 한 러시아 목사는 “저들은 주일에는 마치 성자들 같은데 주중에는 그들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가 없다.”고 탄식했다.

미주의 대표적 교회 중의 하나로 러시아 선교에 온 교회가 힘을 쏟아 실제로 러시아에서 천 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했던 교회도 같은 내용의 분석을 한 적이 있다. 오순절 방식의 전도와 선교가, 변화된 삶이 뒷받침되지 못함으로 마치 해변에서 먼저 쳤던 파도의 물이 다시 돌아 나오면서 그 다음에 돌아오는 파도의 힘을 막는 역파도(Back Wave)처럼 선교의 큰 물결 (Second Wave)을 막아 선교에 심대한 어려움을 겪게 한다는 것이다. 오순절 교회의 열정적이고 뜨거운 예배에서 전해지는 강렬한 희망의 메시지 속에서 기뻐하던 그들이 마침내 그들 자신의 영적 한계로 인한 벽에 부딪치게 된 것이다.

그동안 러시아에는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 프로그램이 발을 들여놓기는 했으나 잠깐 반짝이다 사라져갔다. 미국에서 대단한 부흥을 일으키고, 담임인 R 목사의 책이 전 세계에서 수천만 권이 팔릴 만큼 사역적 역량이 있는 S교회는 모스크바에 지교회를 세우려고 3년이나 온갖 정성과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은 실패했다.

현재 러시아의 종교 상황을 보면 러시아 정교가 43%, 무슬림이 5%이고 불교가 5%인 반면, 개신교는 0.3%에 불과하다. 참으로 참담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러시아 교회에 없는, 러시아 교회가 찾던 것

유일한 길이요 진리도 아닌 것을 진리라 여기며 전파하는 데 힘쓰는 다른 종교의 열심보다 열악한 러시아 개신교의 현황이 안타깝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우선 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그를 제자화 하는 것이다. 그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영적 재생산을 이루는 일이다. 어느 러시아 목사는 이와 같은 제자훈련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것이 우리에게겐 없는, 우리가 찾던 것이었다.”고 고백했다.

필자는 이런 배경 속에서 조심스럽게 제자훈련을 시도해보았다. 러시아 목사들을 한국과 미국에서 열리는 제자훈련지도자 세미나(CAL)에 참석하도록 인도했다. 또한 ‘목적이 이끄는 40일’ 세미나를 러시아 내 약 30-40개 지역에서 개최하면서 러시아 교회의 목회 토양을 바꾸는 노력을 했고 그 바뀐 토양 위에 제자훈련을 접목하는 일을 시작했다.

러시아 민족은 처음 볼 때, 또 겉으로 볼 때는 차갑게 느껴지지만 마음은 따뜻하다. 그러나 누구든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면 그들의 말을 결코 따르지 않는다. 대부분의 프로그램과 사역들이 러시아에서 실패한 이유는 러시아인들과 신뢰의 관계를 맺기보다는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데 더 힘을 쏟기 때문이다. 필자도 제자훈련을 소개한 후, 막상 제자훈련을 시작하기까지는 십 년이 걸렸다. 그러나 이제는 어느 정도 그들의 신뢰를 받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코로나 중에도 그들은 “므이 즘봄 바스 (우린 널 기다려).”라는 말로 내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야 니 하추, 야 니 하추!”

한번은 5~6년 동안 공을 들인 러시아 목사로부터 마침내 제자훈련을 받겠다는 약속을 받은 적이 있었다. 훈련을 할 시간과 장소를 정하며 러시아 동부에서 드디어 제자훈련이 시작된다는 감격을 안고 모스크바에서 그곳까지 9시간 정도 밤 비행기로 날아가 새벽 2시 B 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서 음료를 시켜 놓고 졸다가 6시쯤이 되어서야 택시를 불러 타고 제자훈련 장소로 출발했다. 한 시간은 넉넉히 걸려 도착했으나 아직도 사위가 어두워서 경비실 직원을 깨워 들어가 짐을 풀었다.

그러곤 오전 8시가 되어서 약속한 회의실로 갔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약 한 시간 넘게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지만 누구도 나타나지 않았다. 마음이 무너졌지만 그래도 참고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통역을 해줄 N에게 전화를 했다. N은 영어를 필자보다 더 잘하는데 아주 지혜롭고 믿음 좋은 러시아 목사 사모다.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 뒤에서 남편인 목사가 조그마 한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 들렸다. “야 니 하추, 야 니 하추!” 우리 말로 “나 하기 싫어, 나 하기 싫어!” 였다. 절망스러웠다.

N 사모는 남편 목사님과 상의한 후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기도하면서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약 3시간 후에 전화가 왔다. 결과는 내일부터 전원이 다 훈련에 나오는데 애초 약속한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겠다는 것이 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다. 할렐루야!

다음 날 오전 8시부터 시작한 첫 훈련이 오후 2시에 끝났다. 훈련생들의 표정을 살폈다. 전날 하기 싫다고 하던 목사가 방을 나가다가 내 앞에 서더니 90도 각도로 절을 했다. 그리고 아주 공경한 자세로 고맙다고 했다. 제자훈련 시간을 통해 그 자신이 깊은 감동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러시아 동부 목회자 제자훈련이다. 러시아에서는 한국이나 미국에서처럼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만 참석해서는 도저히 제자훈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세미나가 동시 통역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강의 내용의 반도 듣지 못해서 제자훈련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러시아 전반의 낮은 영적 수준도 문제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목회자 자신들부터 제자훈련을 받게 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게 된다. 우선은 목회자 자신이 영적 변화를 받게 되고 또한 제자훈련을 통해 제자훈련이 무엇인지를 깊이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목회자들을 제자훈련 시켜서 제자훈련을 전파한다. 그러나 이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러시아는 체면 문화가 강한 사회이기 때문이다. 목회자가 무엇을 배운다는 것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되어서 배우는 것을 꺼려 한다. 그리고 상대방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속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다.

러시아 다음 세대 리더 양성, 언제나 어느 곳으로나 파송

지금까지 러시아에서의 제자훈련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마친 선교사들 몇 사람이 제자훈련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의욕만 앞서 시도를 하다가 결국은 접고 만 경우가 여러 번 있다. 그들 중에는 제자훈련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도 없이 그저 제자훈련이 좋다고 하니까

제자훈련 교재를 성경 교재로 선택하여 성경 공부 강의를 하다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만 두게 된 경우도 있다. 제자훈련 교재는 귀납적인 접근으로 훈련생 스스로가 말씀을 기초로 삶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다른 성경교재보다 싱겁고 열매도 없기 십상이다.

또한 제대로 번역된 러시아 판 제자훈련 교재가 없었다. 러시아어가 모국어인 선교사들이 뒤늦게 배운 부족한 러시아어로 번역한 교재는 의욕과 열심에 비해 현지인들이 쓰기에는 부적절한 면이 있었던 점도 초기 제자훈련 실패 원인 중의 하나이다.

이제는 제대로 번역되고 또 현지인들에 의해 교정이 된 제자훈련 교재가 있다. 러시아 중부 시베리아에서는 지금 PRE DT(제자훈련 전 단계)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올 가을부터 6~10개 정도의 제자훈련 반이 출범할 예정이다. 그리고 남부 시베리아에서는 약 30명 정도 제자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동부 시베리아에서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감격스럽게 시작해서 지금 P교회에서 3그룹 정도의 제자훈련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다른 교회에서도 제자훈련이 준비중에 있다. 더욱 감사한 것은 한국의 한 대형 교회가 10년 전에 준비해 놓았던 선교 전진 기지에서 10년 만에 최초로 제자훈련이 진행되어 선교 전진 기지의 원래의 목적 중의 하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미국 해군 특공대인 ‘Navy Seal’에는 9개의 팀이 있는데 ‘Team 6’는 그 중 가장 경험 많고 유능한 팀이다. 구성원들의 나이는 평균 30대 중반으로 파키스탄에서 오사마 빈 라덴의 사살 작전을 담당했던 팀이기도 하다. 이 팀의 캐치프레이즈는 ‘Anywhere, Any Time!’ 이다. 이젠 기독교 안에서도 성도들을 이렇게 잘 훈련해서 필요한 경우에 ‘언제나, 어느 곳으로나’ 파송할 때가 왔다고 확신한다.

코로나로 인해 목회와 사역이 심각한 도전에 처해있는 이때,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이런 각오가 없다면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예수님 말씀처럼 두 종류의 교회로 갈라질 것이다. ‘Team 6’처럼 사는 교회와 성도, 즉 기름을 준비한 성도들과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 즉 시대가 바뀐 줄도 모르고 예전으로 돌아가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 양 다리를 걸치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성도와 교회로 갈릴 것이다.

신학교를 마치고 목회 경험이 있는 30~35 세 정도의 소수 리더를 선발하여 약 4 년의 과정 동안 직접 제자훈련을 받는 것부터 시작하여 러시아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리더를 세우는 것이 골자가 되어야 한다. 첫 단계로 약 100 명 정도의 목회자를 훈련시킨다면 훈련된 한 사람이

다른 100 명의 목회자에게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결국 총 만 명의 러시아 목회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소수 정예 훈련을 통해 Disciple 을 만드는 것을 뛰어 넘어 Disciple Maker 를 만들어 러시아의 영적 부흥의 기틀을 마련하고, 러시아 교회를 통해 대륙에 복음적 실�크로드를 개척하여 여타 많은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어야 한다. 비단 러시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회와 목회 환경은 빠른 속도로 어두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이 더 밝은 햇불을 높이 들도록 이끌어 가실 것이다.

